

일본 메이지 신정부는 왜 번(藩)을 없애려 했나

폐번치현(廢藩治縣)

가쓰타 마사하루 지음, 김용범 옮김



153년 전으로 역사의 시계를 돌려보자. 1871년 6월 조선은 신미양요를 겪은 후 전국에 척화비를 세웠다. 그 해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같은 해 8월 29일(음력 7월 14일) 일본 메이지 신정부 대신이 “번(藩)을 폐하고 현(縣)을 만든다”는 천황의 칙서를 낭독한다. 단기간에 극비로 단행된 ‘폐번치현’에 의해 261개의 번은 사라졌다. 독자들에게 생소한 번(藩)은 에도 막부시대 영주(다이묘)가 다스리던 영지를 의미한다. 앞서 막부는 1867년 12월 왕정복고 쿠데타에 의해 막을 내렸고, 번에 딸린 토지와 영민(領民)들은 천황에게 반환(판적봉환·版籍奉還)됐다.

신간은 일본 근대사를 전공한 가쓰타 마사하루 고쿠 시칸대학 명예교수가 연구자가 아닌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집필한 ‘폐번치현 근대국가탄생의 무대 뒤’를 번역한 것이다. 당시 문서와 일기류, 회의록, 신문보도 등 1차 자료를 인용해 현장감있게 서술했다. 저자는 ‘폐번치현’ 칙서를 낭독한 1871년 8월 ‘번이 사라진 날’에서 시작해 이와쿠라(岩倉) 사절단이 미국과 유럽으로 떠나는 같은 해 12월까지 급박하게 변하는 정세를 세밀하게 살피며, ‘폐번치현’이 갖는 의미를 보여준다.

책은 크게 ‘유신정권이 탄생한 날’과 ‘중앙집권화 가는 길’, ‘일대비약으로서의 폐번치현’, ‘메이지 중앙집권국가의 탄생’ 등 6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폐번치현은 에도시대의 막부체제라 불리는 분권제에 중지를 찍고 중앙집권 체제인 일본 근대국가를 탄생시켜, 그후의 근대화 정책을 급발진시킨 장기적 의의를 지닌다”고 밝힌다.



일본은 1871년 폐번치현을 단행하며 봉건국가에서 근대국가로 나아갔다. 최근 도쿄에서 열린 산노 축제. /연합뉴스

“폐번치현은 일본을 봉건국가(에도시대의 막부제 국가로 불리는 에도막부와 번에 의한 분권국가)에서 근대국가(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국가)로 이행시킨 사건이었다. 폐번치현을 포함한 메이지 유신에 의해 일본 근대국가는 탄생한 것이다. 그리고 막부(쇼군)와 번(다이묘)은 그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일본 메이지 신정부는 왜 ‘폐번치현’을 단행했을까. 저자는 “다가오는 구미열강의 압력 속에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국가 수립이 반드시 필요했다”면서 “강력한 정부의 힘으로 제반(諸藩)을 통제하에 두고 중앙집권화를 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유신정권은 직할지에 둔 부·현과 함께 번을 지방행정구획으로 하는 부번현 세 통치체제를 두어, 이체제의 실제화를 꾀하기 위해서 판적봉환을 단행했다. 법적·제도적으로 변주는 번의 주인이 아닌게 되었고, 지방관(비번사)이 되었다. 이것으로 부번현제 통치체제는 진정한 의미로 지방제도로서 확정되어, 제반 규제를 강화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신간은 1867년 ‘왕정복고 대호령’부터 1871년 ‘폐번치현’까지 5년여 동안 봉건체제에서 근대국가로 도약하는 일본의 모습을 세밀하게 보여준다. 일본 신정부는 ‘폐번치현’을 통해 중앙집권 통치체제를 강화한 후 ‘서양문화(근대화)’를 국가적 목표로 설정했다. 저자는 이와쿠라 사절단 출발 시점으로 장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이때 사절단을 떠나보내는 태정대신의 송별사가 눈에 띈다.

“가거라, 바다를 화륜으로 옮겨가며, 육지를 기차로 돌며, 만리를 돌며 영명을 사방에 선양하여 무사히 돌아올 것을 기원한다.”

신간은 근대 일본 뿐만 아니라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마는 19-20세기 조선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준다. 우리의 근대사를 알기 위해서 이웃나라 근대기의 역사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함을 새삼 깨닫는다. <교유서가·1만9800원 / 송기동 기자 song@

새로 나온 책

▲최소한의 서양 고전=고전 중의 고전 14편을 한 번에 소개한다. 그리스로마신화의 출발점이었던 ‘일리아드’를 비롯해 트로이 전쟁을 다룬 ‘오디세이아’, 아폴로 도로스 신화집 등 다양한 고전들을 다뤘다. 역사학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헤로도토스의 역사’, 서양인의 종교 고전으로 손꼽히는 ‘모세오경’은 물론 ‘요한복음’, ‘마르코복음’, ‘4복음서’ 등 사회·정치·종교·신화 분야를 총망라하는 서적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무발전소·1만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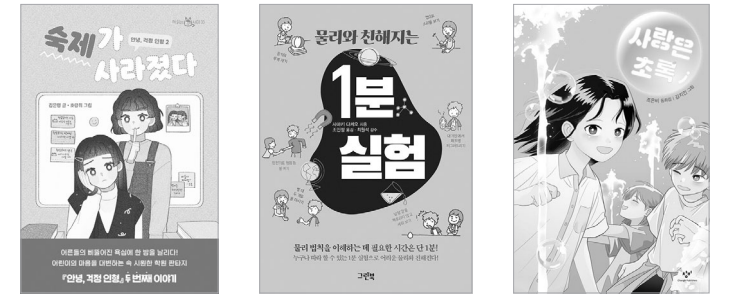
▲침대 말고 다이빙=누구나 운동하기 귀찮은 마음이 있다. 일에 매몰되어 운동하는데 쓸 체력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더는 움직이기 싫다는 이도 존재한다. ‘안 움직여 인간’에 해당해,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즐거운 정신·육체 건강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 리듬’을 찾아야 한다. 운동의 고통 뒤에는 항상 몸을 쓰는 기쁨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수영, 러닝, 인라인스케이트 등과 관련된 다양한 운동 경험을 들려준다. <동양북스·1만6800원>

▲나의 펜은 새의 날개=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현대 아프가니스탄 작가들의 단편 소설 모음집. 작가 15인이 집필한 23편 단편이 수록돼 있다. ‘야간 근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입술’, ‘나에게는 날개가 없다’를 비롯해 ‘D는 더우드의 D’, ‘겨울 까마귀’ 등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목소리가

실려 있다. 이들은 2021년 탈레반이 카불을 재점령하는 위기 속에서도, 소멸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모국어 다리어와 파슈토어로 책을 집필했다. <파초·1만8000원>

▲새벽의 그림자=1989년 11월 무너진 베를린 장벽 사이로 동서독 사람들이 뒤섞인다. 그중엔 동독에 거주하던 북한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북한을 탈출해 중국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탈북자들도 있다. 이 같은 다양한 탈북민들의 삶을 작가 특유의 상상력을 통해 조명한다. 낯선 곳에서 적응하고 뿌리를 내려야 하는 탈북민들의 삶은, 디아스포라 문학을 위시하는 이주민들의 삶과 행적, 그 의식과 맞닿아 있다. <은행나무·1만6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속제가 사라졌다=지나친 경쟁주의에 앞장서 내몰린 아이들의 현실을 그렸다. ‘속제 감옥’에 갇혀 있는 주인공 미들과 친구들은 파업을 벌이며, 어린이의 용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속제가 사라진 세상은 행복할까, 속제 없는 세상이란 아이들의 천국일까. 미들과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전편 주인공 ‘해나’의 활약도 기대된다. <이지북·1만5000원>

▲물리와 친해지는 1분 실험=만약 저를 위에서 한쪽 발을 들면 실제로는 가벼울까, 철 1kg과 실 1kg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 일상 속에서 친근하게 익힐 수 있는 다채로운 물리 개념들을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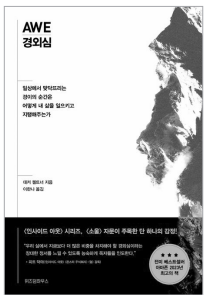
물리학적 호기심을 짚막한 1분 실험 과정과 해설을 통해 알려주고, 과학이 비단 어려운 개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환기한다. <그린북·1만6000원>

▲사람은 초록=동성 친구를 향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주인공은 점차 몸과 마음이 성장해 나간다. 그는 불편한 속웃 착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친구의 장점을 발견하며 자신이 발전하는 계기로 삼는다. 주인공이 정의하는 사랑의 모양은 ‘초록’이다. 서로를 물들이고 또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받아 가며, 청소년들이 함께 성장해 간다. <창비·1만2000원>

일상 속 경이의 순간은 어떻게 내 삶을 지탱해주는가

경의심

대커 켈트너 지음, 이한나 옮김



“살면서 처음 바다를 보았을 때요. 아직 어렸지만 파도와 바람 소리를 들으며 부드러운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느껴요.”, “영화 ‘윈들러 리스트’를 처음 봤을 때요. 음악이랑 주인공의 연기가 미친 듯이 강력했어요. 인간본성에 대한 압축한 진실도요.”

연구에 참가한 26개국의 사람들은 ‘경의심’이란 ‘세상에 대한 기존 이해를 뛰어넘는 거대한 무언가와 마주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설명을 듣고 난 후 자신들이 느낀 체험담을 써내려갔다.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각자만의 경의심을 느낀다. 인간을 압도하는 대자연의 장관 앞에서, 록스타의 공연장에서, 신과의 만남에서, 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에서.

감정을 다룬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시리즈 등에

자문을 한 UC버클리 심리학 교수이자 경의심 연구자인 대커 켈트너의 신작 ‘경의심’은 탄생과 죽음의 순간부터 음악과 자연, 집단 영광과 역경 극복까지 여덟 가지 경의의 순간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풀어낸 책이다.

부제는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경의의 순간은 어떻게 내 삶을 일으키고 지탱해주는가’. 경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신비를 마주했을 때 경험하는 정서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일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맞닥뜨릴 수 있는 정서이기도 하다.

1부에서는 경의심의 과학적인 이야기를 다룬다. 경의심이란 과연 무엇이며 두려움이나 미적인 감각과는 어떻게 다른지, 일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 지 살핀다.

2부는 생생한 개인 체험담이다. 타인의 용기, 친절, 역경 극복 사례가 어떻게 경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인지, 의례, 스포츠 경기, 군부, 종교활동 등 구성원들의 하나된 움직임과 광활한 대자연은 어떻게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지 이야기한다.

3부에서는 음악, 시각예술, 종교와 영성 등 지금까지

인류 문화가 어떻게 경의심을 담아냈는지 들려주며 마지막 4부는 상실과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삶의 불확실성 및 미지의 마주했을 때 이를 딛고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데 경의심이 어떤 도움을 주는가에 대해 들려준다.

저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주변에 나누고 견고한 관계망을 구축하며 자신을 둘러싼 자연과 사회에 이로운 행동을 하려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감정이 경의심이다. 열린 마음으로 이성을 버리고, 위대한 관념과 새로운 통찰에 귀 기울이고, 면역계 염증 반응을 줄이고, 몸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감정”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일상 어디에서나 경의심을 찾을 수 있다. 우리 뇌와 몸이 태생적으로 품는 기본욕구이기 때문에 잠시 호기심을 품고 주위를 둘러 보면 된다. 저자는 “경의심을 느끼기 위해 돈을 쓰거나,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아도 되기에, 심지어 별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에” 더 많이 경험해 보라고 강조한다.

<위즈덤하우스·2만3000원 /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